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임직원 대상 AI 역량강화 교육

입력: 2026.10.26 17:05 / 수정: 2026.10.26 17:05

AI 효과적 활용 방법과 실무 적용 위주 교육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임직원들이 AI 활용 교육을 받고 있다. /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더팩트 | 전남광주=주남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실무 적용 방향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행정문서 작성과 자료 요약, 업무 관련 정보 정리에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비롯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질문 작성법, 정보의 정확성 검토, 개인정보 및 내부자료 보호를 위한 안전한 AI 활용 유의사항도 다뤘다.

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에 관심을 둔 광주지사는 청년이사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생성형 AI로 그리는 더 나은 일터' 포스터 공모전에 참여해 AI 활용에 친밀도를 높이고, 'AI를 통한 단순 업무 개선 방안'으로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김철상 광주지사는 "AI는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기술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농업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